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김도희**

- I. 들어가며
- II.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III. 중국연구의 현황: 지속과 변화
- IV. 중국연구의 문제와 쟁점
- V. 중국연구의 과제와 대안

중국의 괄목할 경제성장과 부상, 그리고 다각적 측면에서 한중교류의 확대와 심화는 한국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지역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가 늘어나고 동시에 교육방면에서 중국관련 학과와 지역전문 대학원이 신설됨으로써 한국의 중국연구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중국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3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중국연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기존연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본 연구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각과 쟁점을 통한 한국의 중국연구 검토를 표명하고 있듯이 현재 중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중국연구의 문제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았다. 둘째, 최근의 중국연구 현황이 어떠한지를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것이다.

**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교수

90년대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연구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 하면서 중국연구의 가장 쟁점이라고 보여 지는 중국연구의 정체성과 연구의 공유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중국연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연구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문공동체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본래 본 논문은 중국연구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연구영역을 넘어서서 논문을 구성하는 것의 한계로 인해 현황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중국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음을 밝힌다.

주제어 : 중국연구, 중국정치, 중국학, 학제간 연구, 연구의 정체성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지역으로서의 중국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이후 중국은 적대 국가였고 폐쇄된 중국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던 한국이 중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는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과 이에 따른 남북화해 무드의 조성이었다. 한국의 중국연구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중소연구소의 전신)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이때부터 시작된 중국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연구라기보다는 공산권 즉 사회주의 국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8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 국내에서의 중국연구는 서구 연구의 모방과 이념적 속박 속에서의 정책연구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정착, 한중수교 그리고

국내에서의 학문적 자유의 확대 등이 계기가 되어 90년대부터 국내 중국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국내에서도 연구 인력이 배출되고 영미권에서 중국지역 연구자들이 들어오면서 연구는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연구로서의 중국연구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의 괄목할 경제성장과 부상, 그리고 다각적 측면에서 한중교류의 확대와 심화는 한국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지역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가 늘어나고 동시에 교육방면에서 중국관련 학과와 지역전문 대학원이 신설됨으로써 한국의 중국연구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중국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3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중국연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연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본 연구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시각과 쟁점을 통한 한국의 중국연구 검토를 표명하고 있듯이 현재 중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은 토대로 중국연구의 문제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¹⁾ 둘째, 최근의 중국연구 현황이 어떠한지를 90년대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연구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연구가 가지고

1) 이 논문은 12명의 중국연구자들의 도움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 논문을 완성한 것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준 12명의 연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더불어 3명의 정치학자와 기타 설문에 응해주신 관련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연구의 가장 쟁점이라고 보여 지는 중국연구의 정체성과 연구의 공유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끝으로 중국연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연구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문공동체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본래 본 논문은 중국연구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연구영역을 넘어서서 논문을 구성하는 것의 한계로 인해 현황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중국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II.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기존연구 검토

완전히 새로운 연구란 없으며 모든 연구는 기존연구의 계승과 비판 속에서 행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는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연구의 대안을 찾기 위한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연구란 무엇이고 문제점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중반 국내에 지역학 관련학과가 생겨나는 등 지역학 붐이 조성되면서 중국지역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기존연구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의 중국연구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에서의 중국연구

구가 어떤 위상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전병곤 1994; 전성홍 1996). 한국에서의 중국연구가 서구의 중국 연구를 모방하는데서 시작되었다는 초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중국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좀 더 객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연구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존연구는 90년대 중반이후 양적으로 팽창해가고 있는 중국연구를 시기와 주제별로 통계를 통해 추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연구자 파악과, 연구 조직이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최명 1989; 전성홍 1996; 김인 외 1996; 전성홍 1998, 전성홍 외 2000).

셋째,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초기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학(Sinology)의 전통적 방법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역으로 서구적 방법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자적 시각과 비교적 시각을 강조하기도 했다(최명 1975; 이희옥 1992). 후기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기존의 지배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서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했다(김영진 2003). 또한 지속적인 ‘돌아보기’(reflection)를 위해 한국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론으로서의 학제간 연구와 현지조사 방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론적 시도나 정착, 논술구조에 어떤 미비한 것이 있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낸 연구도 이어졌다(정재호 2000; 정재호 외 2005).

넷째, 중국연구의 질적 현황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컨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별 분류나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의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연구결과의 질적 도약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 여기서 분석대상은 주로 중소연구에 실린 중국관련 논문이었고 정치학회보와 국제정

치논총에 실린 논문을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문흥호 1991; 조영남 1997; 전성홍 외 2000; 정재호 외 2005).

다섯째, 연구의 문제를 교육과 연관시켜 연구의 발전이 중국연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어떠한 교육풍토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전성홍 외 2000).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기존연구들이 중국연구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점이다. 주목할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제시된 문제점과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며 과제 또한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²⁾ 이는 한국의 중국연구가 일정정도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2. 본 논문의 연구 설계

기존연구가 가진 공헌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나타나는 문제의 제기는 기존연구가 논의를 드러내는 데는 충실했으나 대안을 제시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물론 필자 스스로도 중국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개인 연구자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즉 개인적 차원이 아닌 중국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존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실행 가능한 모색을 해 볼

2)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의 4장과 5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수 있을 것인지를 중국연구자들의 시각을 빌려 공론화시킴으로써 중국 연구가 안고 있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의 인식을 통해 중국연구가 가지는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뷰 형식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했고, 이 설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해 현재 중국연구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모색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90년대 초, 중반에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중국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 6명과 2000년 대 초반부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것은 굳이 중국연구자의 세대구분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³⁾ 중견과 신진 연구자 각각 6명은 또 다시 영미권 박사학위 출신 연구자 2명, 국내 박사학위 출신 연구자 2명, 중국 박사학위 출신 연구자 2명을 분류해서 선정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모든 연구자들이 인터뷰 대상자일 수 있으나 이러한 선택요인에 의해서 12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접촉해서 전화, 면접,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다. 전화나 면접의 경우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면접의 경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응답을 받았다. 인터뷰는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3) 중국 연구자에 대한 세대구분은 70년대 중반 사회과학에서 중국연구가 처음 시도되었던 시기에 연구를 시작한 세대를 1세대로, 8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한 주로 대만학위 출신들을 2세대로, 90년대 초반부터 영미권과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을 3세대로 본다. 9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학위자들 중 일부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4세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 과연 세대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중국연구자들 내에서 한번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2명의 연구자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연구결과물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에 대해 관련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국연구자가 아닌 일반 정치학자 3명에게도 간단한 설문을 통해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중국정치연구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문항으로 제시된 것에 응답자들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계화 하기는 어려웠으며 주로 관련 문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의견과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최대한 설문에 답한 연구자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⁴⁾

III. 중국연구의 현황: 지속과 변화

1. 연구 인력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진 90년대의 연구현황은 비교적 상세하며 연구의 경향이나 특징은 최근까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4)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인터뷰를 분석해 논문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을 깨달았다. 연구자들의 의견을 포함시킬 때 익명으로 하게 됨으로써 개별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견해가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수의 의견을 통해 문제를 접근하게 됨으로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 인터뷰한 내용을 모두 바르게 전달하려는 의도와 달리 만약 일부 왜곡되어 전달된 게 있다면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좋은 의견을 뱌음에도 그것을 다 논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임을 밝힌다.

연구자수와 연구 환경은 달라졌다. 연구의 핵심은 연구자이며 현재 중국연구자수가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누구를 중국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의 사항이 있겠으나 박사학위논문은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박사학위취득 이후 중국지역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중국연구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연구자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든 중국지역 연구자가 포함된 학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문학에 있어서는 어문학, 사학,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중국학회가 가장 오랜 전통과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 1996년의 상황에 의하면 98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36집에 이르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2006년 1월 현재 회원 수는 약 1,300명이고 문학, 역사, 철학 분야로 나뉘어 간사체제로 운영되어진다. 2005년 12월 학술지인 중국학보는 52집까지 출판되었으며 국제중국학연구라는 중문학술지를 창간해 8집까지 나온 상태이다(회장과의 인터뷰). 사회과학 연구자수는 1994년 창립한 현대중국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중국학회의 본래 취지는 학제간 연구단체이지만 주로 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96년 말에 8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5년 7월 전체 회원수는 236명으로 되어 있다(주소록 참조). 다만 회원관리가 적절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나 박사학위취득 국가를 분별해내기는 힘들었다. 또한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중국연구자가 포함된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사회과학 분야가 기존연구에서 밝혔듯이 여전히 학제간의 연구모임보다는 분야별 모임을 중시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정치연구자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소식을 근거로 한 연구에 의하면 99년 말까지 총 89명의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⁵⁾ 2005년 현재 중국정치연구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소록과 중국정치연구회의 연구자 풀, 현대중국학회 주소록 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대

략 124명으로 추산된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 동안 35명이 늘어난 숫자이다.⁶⁾ 중국정치연구회는 중국정치연구자들의 연구모임으로 2001년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현재 연구자 풀은 51명이다.⁷⁾ 이들은 9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학위를 받은 30대와 40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51명의 박사학위 취득국가를 보면 영미권 11명, 국내 11명, 대만 3명, 중국 26명이다. 이것을 다시 2000년 이후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연구자 수만 가지고 분류 해보면 영미권 5명, 국내 2명, 대만 2명, 중국 20명으로 국내 출신 연구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중국출신 연구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연구자의 수적 증가는 중국연구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연구자의 학위취득 국가가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학위취득 국가의 상이성에 따라 연구주제나 방법 또는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⁹⁾ 이는 한편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학위취득 국가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연구 분야가 국내정치인가 혹

- 5) 이것은 95년 말까지 중국정치 연구자 64명에 96년에서 99년까지 4년 동안의 연구자 25명을 합친 숫자이다. 여기에서는 96년부터 99년까지 매해 국가별로 학위취득자를 구분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전성홍 외 2000, 272).
- 6) 2005년에 출간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소록에서 전공분야에 중국정치로 기록되었거나 중국정치연구자를 추려낸 것이 106명이었으며 중국정치연구회의 회원 풀에서 국제정치학회 주소록에 나와 있지 않은 연구자수 15명과 현대중국학회 회원에서 이 둘에도 가입되지 않은 회원 3명을 합쳤을 경우의 숫자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영역에 포함 되지 않은 연구자수가 더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중국정치연구자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 7) 회원수가 아니라 연구자 풀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정치연구회 운영상의 특징으로 출석 미달로 인해 현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도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원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 이는 이미 96년에서 99년 4년 사이에 새로 들어온 25명 연구자 중 9명이 중국 출신임을 보여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전성홍 외 2000, 272).
- 9) 어떤 언어권에서 학위를 했는지 차후 어떤 지식체계의 주된 전파대상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학계에서의 목시적 패권의 향방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정재호 2000, 18). 학위취득 국가와 중국정치 연구주제 선정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조영남 1997, 202).

은 대외관계인가의 구분이 더 중요하며 거시적 문제를 다루는가, 미시적 문제를 다루는가에 따라 연구자가 사용하는 자료나 연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 연구 환경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며 연구기관, 연구단체, 연구비 모두가 필요한 조건들이다. 지역연구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에서 나오는 자료를 필요로 하고 현지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경비와 조사비가 소요된다. 1997년부터 한국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서 관리하던 해외지역연구 사업이 99년에 없어진 이후로 중국연구자들이 연구비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 2002년은 지역연구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된 해이기도 한데 대규모의 연구비가 책정되면서 다수의 지역연구과제들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중국지역의 경우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에 지원할 수 있고 이 분야는 토대연구분야와 심화연구분야 로 나뉘는데 심화연구분야의 국내외 지역학 연구를 통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지역 관련 과제들이 다수 선정되었다. 2004년에는 총 680억 원이 책정되어 305 과제가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670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중에서 인문사회분야 134개 중 9개가 중국지역관련 과제였다. 학진 연구비를 받은 중국연구의 결과물이 대부분 단행본으로 엮여져 나오므로 인해 중국관련 단행본의 주제가 더욱 다양화되었고 중국연구 인력의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¹⁰⁾ 이외에도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프로젝트

10) 물론 학진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준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연구 관련 학진 과제의 결과물로 다음과 같

재정지원 증가를 들 수 있다. 설문을 통해서 보면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은 지원 단체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고려재단, 서남재단, 성곡 재단 등이 있었다.

중국연구의 필요와 연구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현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원래 공공기관은 중국만을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연구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을 통해서 보면 3명의 연구자들이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꼽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연구 기여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중국연구자들이 중국 현지조사를 자주 가고 중국학술정보원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한국의 공공 연구기관에서 자료수집의 이점이 점점 없어지는 것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스스로가 중국연구의 시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더 큰 원인이 있으며 각 기관에 중국연구자 수가 부족하다거나 자신들의 정보나 연구 성과를 일반 연구자나 대중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중국연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 대학부설 소규모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양대 중소연구소는 1997년에 아태지역연구센터로 바뀌면서 연구 영역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외국학 종합센터에서 중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중국문제연구소, 중국센터 등의 이름을 가진 대학 부설 연구소들은 대학 내의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학술지를 발간하는 이외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 단행본들이 출판되었다. (전성홍편 2004; 장수현 외 2004; 이일영 외 2004; 김재철편 2005; 김도희편 2005)

연구기관과 비교해 학술단체는 활성화 된 측면을 보인다. 90년대 중반에는 어문학 분야에서 11개의 학회가, 사회과학 분야는 충청중국학회 1개가 있었다(전성홍 1998, 15). 현재 인문학분야의 중국관련 학회는 22개이며 사회과학분야 중국관련 학회는 2개이다. 이외에도 중국영화 연구, 중국현대사연구, 중국정치연구 등 다양한 연구회들이 소규모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중국정치연구에 한 정해 보면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중국관련 학술회이나 분과위원회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¹¹⁾

3. 연구 결과

연구 인력, 연구 환경과 더불어 연구현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는 단행본과 학술지,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국연구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¹²⁾ 단행본의 경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362권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861권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00권으로 양적 팽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서적이 각각 50%씩을 차지한다. 인문학에서는 역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과학에서는 경제·산업 분야가 가장 많고 다음이 정치 분야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

11) 2005년 두 학회는 연례학술회의에서 중국정치학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정치학회는 비교·지역연구분과를 통해,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아시아연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2005년부터 중국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2) 중국관련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국회도서관은 가장 방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분류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하지 못한데 단행본이 저서와 번역서 구분 없이 되어 있으며 학술지의 경우 학술논문만이 아니라 기사도 포함되어 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사도 학술성 있는 기사를 포함시켰으며 이를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81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83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93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학위자가 배출되었으며 사회과학의 경우 96년부터는 경제·상업 분야가 정치 분야를 앞서고 있다. 단행본과 달리 인문학의 비중이 사회과학보다 더 크다. 학술지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352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7,275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776건으로 약 1.3~1.5배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사회과학이 단연 많고 인문학에서는 어문학이, 사회과학에서는 2000년까지는 비슷하거나 정치 분야가 약간 많았으나 2001년부터는 경제·상업 분야가 두 배정도로 많아졌다. 인문학에서 단행본은 역사 분야가 많고 학술지는 어문학 비중이 높다. 사회과학에서는 단행본이나 학술지 모두 경제학 분야의 연구결과가 많다.

학술지의 경우 각 분과학문별로 분과학회지에 중국지역관련 연구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신아세아, 동아연구, 아세아연구 등 아시아 관련 학술지가 있고,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학술지만도 50여개에 달한다. 중국학연구 같이 인문과 사회과학이 모두 실리는 학술지도 있고 중국학보 같이 인문학 즉 문사철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 주로 사회과학 논문이 실리는 중소연구, 현대중국이라는 학술지 등이 있다. 혹은 어문학이나 현대문학 등 단일 분야의 중국전문 학술지도 다수 존재한다(학진 홈페이지).

〈표 1〉 한국의 중국연구 결과의 양적 현황과 추이

년 도		1991-1995	1996-2000	2001-2005
단행본	역사	209	272	362
	어학/문학	108	123	177
	철학/종교	95	105	109
	예술(문화)	36	48	90
	사회	45	67	117
	정치(외교)/행정	226	320	356
	경제/상업	369	444	611
	역사	36	48	37
박사학위논문	어학/문학	56	73	81
	철학/종교	32	37	32
	예술(문화)	8	27	55
	사회	4	3	1
	정치(외교)/행정	52	54	57
	경제/상업	35	60	78
	역사	330	617	748
학술지 논문 및 기사	어학/문학	607	1,397	1,755
	철학/종교	195	351	428
	예술(문화)	145	222	345
	사회	307	461	707
	정치(외교)/행정	1,145	1,729	1,788
	경제/상업	1,189	1,636	3,271

출처: 국회도서관 정보검색 목록 (2006년 1월 23일).

주: 단행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자료 전체 숫자는 이공계 및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숫자이다. 여기에서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간추려서 분야를 나타냈다. 인문과학에서는 역사, 어문학, 철학과 종교, 예술(문화 분류는 없으나 예술에 문화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사회과학에는 사회(사회과학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사회학 관련 자료를 나타냄), 정치(외교를 포함하고 있음), 행정, 경제, 상업을 포함시켰다.

4.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된 양상

중국연구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필자가 고민한 것은 중국연구의 질적 상황을 기존연구에서 보여준 연구주제를 통한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2명의 연구자

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질적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학술지라면 어떤 학술지를 통해 중국연구의 질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8명이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학술지와, 중소연구를 지명했고 이외에 국가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국제지역연구 등의 학술지가 거론되었다. 전문연구서를 봐야한다는 의견이 5명 있었고, 논문게재보다는 등재지 논문을 읽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3명 있었다. 이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의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서는 최근에 나온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그리고 필자가 참가한 연구과정의 변화를 통해 중국연구가 과연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단행본 저서의 경우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식이나 개괄적 설명위주의 연구저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연구저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주제영역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기존연구는 양안관계, 중앙-지방관계, 시장화와 노동정치에 대해 예를 든바 있다. 2000년부터는 기층 행위자인 농민공에 대한 저서에서 시작해서, 제도로서 전국인대를 다룬 저서, 정치개혁, 도시노동시장,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다룬 개인 저서들이 출판되었다(조영남 2000; 이민자 2001; 김재철 2002; 김영진 2002; 이희옥 2004). 이 저서들은 연구자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심화시킨 것도 있고, 중국의 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보여준 것도 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데올로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등 세분화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학술지의 경우는 이미 중소연구에 대한 분석을 한 기존연구들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8명의 연구자들이 선정한 두 개의 정치학 관련 학술지에 중국정치연구논문이 얼마나 실리고 있는지를 통해 중국정치연구의 질적 측면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논문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논문의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전문 학술지의 경우에는 중국논문이 주로 실리므로 그 수를 가지고 질적 측정을 하기 어려운 반면, 90년대 말까지 두 개의 학술지에 중국연구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심사체계가 비교적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학술지에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중국연구자들의 연구가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방식을 사용했다. 표2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두 개의 학술지에 실린 모든 중국관련 논문의 수를 보여준다. 대만연구나 정치사상, 중국과 다른 국가의 비교연구를 모두 포함시켰다.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에는 정치사상논문이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정치문화 관련 논문도 있었다.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데 다만 90년대 중반에는 다수의 정치사상 논문으로 인해 중국관련 논문 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정치사상보다는 실증적 연구에 가까운 논문들이 실려 있다. 한국정치학회보에 비해 국제정치논총은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정치 연구논문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치학회보에 정치사상이나 이론적 논문이 주로 실리는 학회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며 게재일자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이기도 하다. 그와 비교해 국제정치논총은 지역연구 논문이 많이 실리는 편이고 원고신청과 게재 일을 세달 단위로 명확히 하고 있어서 두 개의 학회지 중 국제정치논총을 중국정치 연구자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³⁾

13)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개 학술지의 편집 일을 담당했던 관련 학자에게 중국정치 연구논문의 게재율을 질문했으나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전체 게재율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며 두 개 학회지 모두 3명의 편집이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참고로 2005년도 한국정치학회보의 논문 게재율은 49.1%이고, 국제정치논총의 논문 게재율은 평

〈표 2〉 두 개의 학술지에 실린 중국정치연구 논문 수

출판년도 \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1991	0	2
1992	2/1	1
1993	0	1
1994	3	1
1995	5/1	1
1996	5/3 (1)	1 (0)
1997	2/2 (1)	2 (2)
1998	2/1 (4)	5 (1)
1999	4/1 (3)	4 (2)
2000	4 (10)	5 (4)
2001	5 (8)	6 (9)
2002	2 (1)	6 (10)
2003	3 (4)	4 (8)
2004	2 (6)	8 (3)
2005	2 (11)	8 (22)

출처: 1991-2005년에 출간된 한국정치학회보 및 국제정치논총

주: 1) / 는 한국정치학회보의 정치사상 논문 수

2) ()는 해당년도 논문 중 한국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논문에서 한국자료의 숫자

필자는 이것과 더불어 이 두 개의 학술지에서 한국에서 행해진 기존 연구를 얼마나 인용하고 참고하고 있는지를 통해 중국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다. 두 개 학술지의 게재 수 증가와 더불어 학술논문에서 한국의 중국연구 결과를 얼마나 참고하고 있는가도 중국정치연구의 질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년도 논문 중에서 한국 자료 인용수가 가장 많은 논문의 경우 몇 편을 참고했는가를 통해 그것이 90년대와 2000년대가 차이를 보이는가에 주목했다. 물

근 47%였다(한국정치학회보소식;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론 참고자료의 전체 수에 있어서 한국자료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연구결과가 단독으로 연구자들의 논문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를 통해 한국의 중국연구가 가지는 위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자료의 인용횟수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학술지 모두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올수록 인용수가 늘고 있으며 2000년대의 논문에는 좀 더 눈에 띄게 한국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과연 한국의 중국연구가 질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명확한 증거인가에 관해서는 필자도 주저되기는 하지만 논문작성에 있어서 기존의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하고 있는가는 한국에서의 중국연구가 연구자들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질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여겨진다. 셋째, 중국연구의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동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다양한 연구진행 방식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는 중국연구에 있어서 공동연구의 형식적 측면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공동연구라는 것이 개별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발전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 변화된 공동연구의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연구의 바람직한 대안과 질적 향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연구의 과정은 사실상은 공동의 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물론 2000년대의 공동연구가 긍정적 측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여전히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계획서를 쓰는 데만 주안점을 두며 연구비를 받은 이후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연구비를 안배하고 개별연구에 머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학진 기초학문연구의 경우 전임연구원에게 안정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연구비에 상관

없이 준비된 기획에 의해 지속적인 검토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 연구를 완성한 경우도 있다(정재호 2000; 정재호 2002). 몇몇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중심으로 연구가 기획되어지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논문의 완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연구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연구의 답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구술을 통해 문혀진 기억을 재창조해내는 작업을 시도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연구자와 성공적인 협업을 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내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공동연구의 질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중국연구의 공공재 형성은 전체 중국연구의 질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V. 중국연구의 문제와 쟁점

앞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연구는 한국에서의 중국연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해왔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연구의 단절이라고 얘기되는 고립의 문제이다. 즉, 해외연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동시에 국내의 기존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지 못함으로써 문제의식과 연구 작업이 고립되어있다. 동시에 학제간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연구가 가지는 총체적 접근이 부족하며 정치학이라는 학문분과의 이질성이 커서 뚜렷한 학문적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워 해당 중국학이나 학문분과 발전에 기여

14) 서울대의 동아시아관련 공동연구, 서강대와 가톨릭대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중국지역 공동연구, 광운대의 한류 공동연구, 서울대의 중국강대국화 공동연구, 한신대의 중국 대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천) 공동연구, 협동과제로서 중국 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공동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 못하고 단독적인 연구가 되기 쉽다(전성홍 1996).¹⁵⁾ 둘째, 학문적 고립의 문제가 야기한 결과로 중국지역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쟁점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함으로써 중국연구의 이론화 수준이 매우 낮다(전성홍 외 2000; 정재호 외 2005). 셋째, 제도적 여건의 미비와 연구풍토로서 진지하며 제대로 된 토론과 자유롭고 풍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이다(전성홍 1998; 전성홍 외 2000). 물론 이외에도 인적,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거나 연구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전문학술지가 가진 문제, 연구대상을 중국으로만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개혁개방 이후라는 현대중국만 중시함으로써 변화와 지속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연구의 현황을 통해 밝혔듯이 일정정도 호전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연구가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고질병이다. 12명의 연구자에게도 현재 중국연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기존연구가 제시한 문제점을 유사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집단의 문제로서 연구 세대 간 연계성의 문제나 연구자의 전문성이나 엄격함의 부족이,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주제의 중복과 반복이 심하고 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현실이 더불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이 이러한 중국연구의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연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¹⁶⁾ 하나는 중국연구의 정체성이며 다른 하

15)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장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해외연구와의 관련에 있어서 학문의 속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역으로 서구에서의 중국연구의 기존 쟁점들을 제대로 숙고하고 숙성시키지 못하는 연구의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이희옥 1992; 정재호 2000; 김영진 2003).

16) 본 논문에서 다루고 싶었던 또 하나의 쟁점은 한국에서 중국연구의 비교우위가 과연 존

나는 연구의 공유이다. 중국연구가 가지고 있는 단절과 고립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로 부터 시작해서 중국연구의 이론화 수준과 토론 문화의 정착에 대한 고민은 결국 중국연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1. 중국연구의 정체성

지역연구를 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기존 분과학문과의 관계정립에 있어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연구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을 어떤 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학문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인가와 연관되며 그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언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에 대해 정통해야 가능할 수 있다. 지역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학이라는 분과학문으로 학술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연구가 가진 어려움은 더 배가될 수밖에 없다. 지역연구가 가진 이러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중국정치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2명의 연구자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에서 본인이 정치학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역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가라는 질문에 정치학자라고 답한 사람이 4명, 지역 연구자에 가깝다고 답한 사람이 4명이었다.¹⁷⁾ 4명의 응답은

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된 바 있는 이 문제는 필자의 한계로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쟁점이다.

- 17) 정치학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에 비해 지역 연구자라고 답한 사람은 한명만이 확실하게 지역연구자임을 말하고 나머지 세 명은 초기에는 정치학자라고 생각했으나 연구 활동을 해나가면서 지역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더 가까워진다거나 혹은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퍼센트로서 양분하고 있는데 퍼센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반반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¹⁸⁾ 이러한 대답의 분산을 중견과 신진으로 구분해서 보면 중견연구자의 경우 정치학자라는 대답은 1명, 지역연구자는 2명, 반반은 3명이었고 신진연구자의 경우 정치학자는 3명, 지역연구는 2명, 반반은 1명이었다. 학위 취득 지역으로 나눠보면 영미권 4명중 정치학자라는 답은 2명, 반반이 2명이며 국내 4명중 지역연구자 2명, 반반이 2명이고 중국출신 4명중 정치학자 2명, 지역 2명이다. 물론 이것을 통계로 해서 다수의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중견연구자의 경우 정치학자와 지역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면 신진연구자의 경우는 정치학자라는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영미권 출신은 지역연구자라고 답한 사람이 없으며 국내출신은 정치학자라는 응답이 없고, 중국출신은 둘로 양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는가가 연구자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여긴다. 혹은 현재 그 연구자가 소속된 곳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해진다. 학문적 훈련이라는 것은 정치학적 훈련을 받았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영미권이나 국내출신이 정치학 과목이나 훈련을 받은 것에 비해 중국지역에서 공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부족하게 교육받은 것을 돌려하는 이야기로 보인다. 소속된 곳이란 재직 중인 경우 정치학 관련 학과인지, 지역학관련 학과인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얘기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일편 타당성이 있으나 설문지의 답변을 통해서서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즉 영미권이나 국내 학위자들의 경우 정치학자로서 보다는 복합적 대답을 선택했고, 중국출신은 정치학과 지역연구자로 양분되었다. 응답자 중 3명이 정치학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데 그중 두 명은 반

18) 40%는 정치학자, 60%는 지역연구자라는 응답자도 있고 정치학자 45%, 중국연구자 55%가 적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반을 얘기했으며 한 명만이 정치학자라고 대답했다.

정치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대답 중에는 현재 지역학이라는 것이 다른 학문분과와 경쟁이 안 되며 정치학에서 중국정치의 위상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경우 정치학 자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연구가 학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이 중국정치 연구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핀다. 신진학자일수록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학문으로서의 중국학이 가지는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개념과 훈련을 통해 중국정치연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비교정치 영역으로서 중국정치를 인식하고 중국정치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세계정치 흐름에서의 위상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말한다. 중견연구자 중에는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는데, 연구의 과정 속에서 해당 이슈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혹은 정치학적 방법론을 왜 선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역으로 분과학문 풍토가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중국연구가 정치학에 종속되거나 하위레벨의 지위로 인식되는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물론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지역연구로서의 중국연구는 대립적이기 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대답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생각할 뿐 공론화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본인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연구를 발전시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연구의 치명적 결함으로 지적되곤 하는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학과의 적극적인 접목과 결합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이 강할 때 오히려 학제간 연구에서 중국정치 연구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학위과정에서 이에 대한 훈련

이 적었다면 이것을 연구 활동에서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학이 아니어도 중국정치연구가 설 자리가 있으며 독자적 연구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고립된 마인드보다는 좀 더 세련된 관계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정치학자인 타자의 시선은 중국정치연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세 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그들의 응답은 중국연구를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탁월한 학자를 배출했고 현재도 선도적이지만 중국의 경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정치연구의 국내정치나 국제관계에서 갖게 될 비중이 점차 커지므로 그들은 중국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정치학에서 중국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실변화에 적절히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중국정치연구의 사회과학적, 체계적 연구의 주도적 역할이 정치학의 총체적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중국이라는 특수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¹⁹⁾ 물론 정치학자들의 견해가 중국정치연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연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학에서 중국정치연구의 위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와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하나의 쟁점일 뿐이다. 쟁점이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19) 세 명의 정치학자에 대한 질문이 모든 정치학자들의 견해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 온 연구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므로 일부의 의견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학 내의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제안은 설문에 응한 중국 연구자의 의견에서도 보여 진다.

2. 연구 과정과 결과의 공유

연구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며 개인이 인내해야 되는 사투이며 고난의 과정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진 재능은 각기 다르며 개별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연구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학제간 연구를 포함해서 공동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12명의 연구자에게 학제간 연구 그리고 공동연구와 관련된 인터뷰 질문을 했다. 하나는 학제간 연구 등 공동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수행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연구자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가 적절한 인적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대부분의 답변자가 학제간 등 공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다수의 답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적절한 연구자를 섭외한 경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기존연구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학제간 연구의 경우, 형식은 학제적이지만 연구과정이 학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학제간 연구가 inter라는 학제가 아니라 multi라는 다학문적, 잡종적 연구가 되어져 온 것에 대해서도 기존연구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정재호 외 2005). 사실상 학제간 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자체가 다분히 이상적이며 지난한 작업인 것은 사실이다. 학문 영역간의 장벽이나 배타성이 유달리 강한 한국학계의 풍토에서 공동연구는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개별연구의 단순조합에 그친다. 연구자들은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갑작스럽게 공동연구를 구성하며 지원을 하는 쪽에서도 연구내용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검증체계가 없음으로 인해 공동연구를 충실하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특

하나 중국지역연구의 경우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과 장기적 프로젝트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학제간 연구란 무엇인가,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연구의 문제점인 자신의 기존사고와 연구방법에 대한 성찰과 상호교류 속에서 이를 조정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3장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최근에는 제대로 된 연구의 모범적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희망을 갖게 한다. 공동연구에서는 팀 구성원들의 헌신성과 노력이 중요하며 해당주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자료를 읽고 세미나를 하는 강도를 높임으로서 공동연구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분과체계를 가진 연구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끊임없는 논의에 의한 연구주제의 선정을 통해 중국의 현상과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규명할 것인가가 결국 쟁점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중국연구가 갖고 있던 폐쇄성과 학문적 쟁점의 부재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료나 정보의 공유, 그리고 연구의 축적을 위해 현지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인맥과 개별정보를 함께 나누려는 공개된 태도와 풍토 또한 중국연구의 질적 발전과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가 개인적 작업의 완성에서 좀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²⁰⁾ 12

20) 필자는 이와 더불어 연구 결과를 어디에 게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진 등재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학술지의 성격을 고려하기보다는 학회지의 권위나 등재지에 낸다는 답변이 많았고 다양한 학술지에 고르게 글을 실는다는

명의 연구자들에게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내기 전에 학술회의에 발표하는 편인지, 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의 반수인 6명이 학술회의에서 사전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5명이 하는 편이라고, 1명은 대형 학회에서는 하지 않고 소규모 연구회에서만 한다고 답했다. 학술회의에 사전발표를 하는 편인가 아닌가의 답변과 달리 사전발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말하는 응답자는 8명이고 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도 5명이나 되었다. 발표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응답도 있고 발표는 안하지만 유용성은 있다고 답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학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학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서 정치학 관련학회의 현주소일 수 있다. 그러나 학회에서 다루는 이슈의 문제나 토론의 풍토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학술모임을 통해 연구를 공유하고 있는 인문학과 달리 사회과학분야의 중국연구는 연구를 공유한 장(場)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 과연 문제만 제기하고 학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적극적으로 학술회의 발표장에 가지 않는가, 왜 남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려고 시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토론을 맡으면 형식적으로 논평하는가, 왜 우리는 신랄한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논문의 질을 높이는데 반영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 논쟁적인 이슈와 주제를 만들어 학술회의에 패널을 구성하지 않는가. 이 모든 문제는 연구의 개별화가 가지는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본다. 연구는 과정이자 결과이며 이러한 과

의견도 있었다. 학술지가 과연 나름대로의 학술적 목표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들이 글을 쓰는 중요한 기준이 자신의 논문의 성격이나 주제가 해당 학술지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해당 학술지가 권위가 있느냐 혹은 학진의 등재인증을 받았느냐가 우선시 되는 현상은 필자도 피해갈 방법은 없지만 조금 씩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정은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소극적 태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정치연구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 있다.

V. 중국연구의 과제와 대안

이제까지 제시된 중국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중국연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 서구이론의 수용과 한국적 학문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학계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며 학술회이나 토론문화 또한 한국학계의 잘못된 풍토의 반영이다. 연구 환경의 문제 역시 한국사회 혹은 한국정부의 기초학문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중국연구는 자체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몫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과제와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¹⁾

첫째, 중국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영역의 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연구모임을 조직하는 방안이다.²²⁾ 중국연구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국연구는 산발적이고 개인적이다. 방법론의 문제와 쟁점이 부재하다거나 연구의 주제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의 심화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러한 개별적 연구가 가진 속성의 영향일 것이다. 연구모임은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공부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도

21) 중국연구의 과제와 대안은 중국연구가 가진 문제점과 관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어진다. 그래서 중복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문제와 쟁점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22) 소규모 모임의 조직과 관련해 12명의 연구자 중 5명이 이것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능하며 주제별로 다른 학제 혹은 정치학에서 다른 전공분야와의 연구 모임도 가능할 것이다.²³⁾ 이것은 배우려는 자세를 길러줄 수 있으며 학문이나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경험을 교류하고 축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며 중국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한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일 수 있다. 또한 대형학회가 가지는 토론풍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신랄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경험들이 길러져야 한다고 봤을 때 소규모 연구모임은 이를 해결할 실제적인 구조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임이 기초가 돼서 학술회의에 패널을 조직할 수 있고 연구의제(research agenda)를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는가에 대해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연구가 단지 기능적인 지식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구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한 중국정치 연구자는 한국의 중국연구가 편리하거나 하고 싶은 연구만을 하며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⁴⁾ 이 얘기는 단순히 시사적이고 실용성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과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학문연구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23) 연구주제 중 하나로 한국에서 연구된 중국연구의 주제별 검토를 제시할 수 있겠다. 이는 중국지역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접근방식이 차별화됨으로서 전체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주제들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연구되었는지에 대해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또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떠한 공헌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한국의 문헌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김성곤 1997).

24) 이 연구자는 12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명의 연구자 중 한명은 역으로 한국의 중국연구가 너무 한국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국내정치 연구자들이 최근 외교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 경향이나 국내정치의 경우 언론에서 주목하는 주제에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작업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실천과 교통하지 않을 경우 사장된 지적 층만 일 수 있다. 연구를 현실과 연계 짓기 위해서는 중국사회주의의 변화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지표로 중국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연구자 스스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중국전문 자료실이나 중국관련 종합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²⁵⁾ 이것은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에서 연구 기회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과연 이러한 대안들이 단기간에 가능한 것인지, 중국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 한국의 학문적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으며 연구자들은 연구실적을 위해 논문을 양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연구를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에 투여할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중국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의 수집이 점점 더 개인적 차원에서 축소되는 마당에 공공재로서의 중국관련 연구센터 건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결국 중국연구의 실행 가능한 과제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며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된다. 70년대 말에 쓰여진 중국과 관련된 한 권의 저서는 그 당시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었으며 사회를

25) 기존연구에서도 학문공동체의 배양과 유지를 위해 이것의 건립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전성홍 1998; 정재호 외 2005). 12명의 연구자 중 2명도 자료와 정보, 연구주제와 담론생산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을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바꾸려는 원대한 이상을 갖게 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국연구 저서가 체제와 제도 밖에서 중국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한국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실천적인 자세에서 연구되어졌기 때문이다(이영희 대담 2003). 물론 이런 거대한 영향을 꿈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개인연구자 스스로가 나는 혹은 우리는 왜 중국을 연구하는가, 내가 하는 중국 연구가 우리의 현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전성홍 2004). 한국의 중국연구 인력은 풍부하며 연구할 주제와 영역과 지역은 방대하다. 이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며 연구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소통하려는 학문적, 실천적 자세를 갖춘다면 한국의 중국연구의 발전은 희망적이다.

참고문헌

- 김도희 편. 2005. 『새로운 중국의 모색 2: 정체성의 문화적 담론』. 서울: 폴리테이아.
- 김성곤. 1997. “문화대혁명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지역연구』 제6권, 제1호.
- 김영진. 2002. 『중국의 도시노동시장과 사회』. 서울: 한울.
- _____. 2003. “중국정치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4호.
- 김인·전병곤. 1996. “중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대학원지역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재철 편. 2005. 『새로운 중국의 모색 1: 발전과 안정의 병행』. 서울: 폴리테이아.
- 김재철. 2002. 『중국의 정치개혁』. 서울: 한울.
- 문홍호. 1991.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중소연구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5권 제2호.
- 이민자. 2001.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관계』. 서울: 나남.
- 이영희. 1979. 『전환시대의 논리: 아시아, 중국, 한국』.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영희·백영서 대담. 2003. “비판적 중국학의 뿌리를 찾아서.” 『중국의 창』. 창간호.
- 이일영 외. 2004. 『중국 대도시의 발전과 도시인의 삶, 베이징의 사례』.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이희옥. 1992. “중국연구 방법론 시론: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연구의 모색.” 『중국연구』 제13집.
- _____. 2004.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서울: 창비.
- 장수현 외. 2004. 『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 한류의 중국적 토대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 서울: 학교방.
- 전병곤. 1994. “중국연구의 방법과 과제.” 『중국연구』 제15집.
- 전성홍 편. 2004. 『전환기의 중국사회 1: 변화와 지속의 역동성』. 서울: 오름.
- _____. 2004. 『전환기의 중국사회 2: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오름.
- 전성홍. 1996. “중국 국내정치 분야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백권호·이문형·이태환·전성홍. 『중국정치, 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8.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

- 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4. “한국의 중국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중소연구』, 제27권 제4호.
- 전성홍·이민자. 2000.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
- 정재호 편 2002. 『중국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
- _____. 2000. 『중국정치연구론』, 서울: 나남.
- 정재호. 2000. “중국정치 연구의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에 관하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
- 정재호·안치영·박만준·장윤미·차창훈·박병광. 2005. “한국에서 중국정치 연구의 재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권 2호.
- 조영남. 1997. “중소연구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 『국제지역연구』 6권 1호.
- _____. 2000.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개혁기 구조와 역할의 변화』, 서울: 나남.
- 최 명. 1975. “중국학에 있어서 자료와 방법론의 문제.” 『중국문제(중소연구)』 제1권 제1호.
- _____. 1989. “중국연구현황.” 한국공산권연구회 편. 『한국공산권연구백서』,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12명 중국정치연구자 인터뷰 2006년 1월 9~18일

3명 정치학자 인터뷰 2006년 1월 16~22일

관련자 인터뷰 2006년 1월 9~20일

한국중국학회 회장 전화 인터뷰 2006년 1월 24일.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담당자 전화인터뷰 2006년 1월 19일.

『한국정치학회보』 25권 1호(1991)부터 39권 5호(2005).

『국제정치논총』 41권 1호(1991)부터 45권 4호(2005).

『한국정치학회소식』 2005. 제29권 제5호.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05. 제117호.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주소록』 2005.

『현대중국학회 회원주소록』 2005.

『중국정치연구회 회원주소록』 2005.

The Chinese Studies of Korea: Issues and Ideas

KIM, Do Hee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issues and problems of the Chinese studies in Korea that has 30 years history on the basis of evaluating the established Chinese studies of Korea. First, It will show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existing Chinese studies of Korea, what is the method of this article for the different approach. As the sub-title of this paper, it uses interviews intended for 12 researchers of Chinese politics and 3 scholars of political science. That will show us more propound critical mind and concrete vision about Chinese (political) studies. Second, It discusses the present condition of Chinese studies in Korea on 21th century, the nature of change and continuance by comparing with Chinese studies nineties. Additio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Chinese studies of Korea is an identity problem between original department and area studies. Third, this suggests that Chinese studies of Korea have to research into new methodology and a bruising debate as a way of solution, the other way it also think about how the chinese studies of Korea will contribute to Sinology learning groups, humane and social science, widely Korean society.

Key Words : Chinese Studies, Chinese Politics, Sinology,
Interdisciplinary Studies